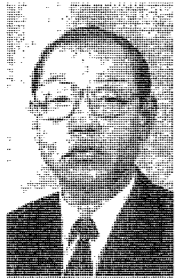


# 東大新聞

1997년 (월) 2541년 10월 6일 (월요일) 제 1232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10 / 발행인 송석규 / 편집인 겸 주간 정태호 / 부주관 고장택 / 편집국장 이인성 / 편집장 김기영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02) 260-3491 ~ 2 FAX (02) 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61) 770-2057

김주일이언  
 조그만 즐거움과 조그만 반재와 조그만 지혜를 즐기  
 워하지 않고 자세히 관찰하며 큰 것을 구하면 무척  
 편안함을 얻으리라.  
 방규경 · 인영복 307절

## 구자선동문 3억기탁 경영·교육대학원도 발전기금으로 약정



구자선 (태우 주택 (주) 대표 이사)씨가 본교 경영 대학원(원장=김인제·경제학)에 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지난 1일 기증했다.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열린 '경영대학원 4번째 기념 신임생활영양회 및 자족연'에서 기부금을 전달한 구 동문은 현재 경영대학원 동창회 고문을 맡고 있으며, 이번 기증을 합하여 총 5억원을 본교에 기탁했다. 한편, 구동문은 지난 5월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에 '덕담세미나실'을 헌당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경영대학원 50기 신입생들도 지난 2일 발전기금 3천만원을 약정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은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총장 및 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연수 경영대학원 학생회장이 송석규 총장에게 약정서를 전달했다. 한편, 교육대학원 38기 신입생들도 4천1백11만7천6백원을 발전기금으로 약정기부했다. 동국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7면

## 동국·로알 한의대 한의사 합격률 1위

본교가 작년 9월에 합병 인수한 '동국·로알 한의과' 대학이 지난 8월에 있었던 캘리포니아주 한의사 면허시험 최종발표에서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한의사 시험에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3백87명이 응시한 실기시험에서 2백35명이 합격해 61%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한의과대학 10개 대학중 한국어 프로그램이 개설된 곳은 로알한의대를 비롯 사우스베일르(64%), 황제(59%), 삼라(53%) 등이 있으며 이중 본교 로알한의대 65%의 최고합격률을 나타내 우수 한의대로서의 위상을 보였다.

## 사격부, 경찰청장배 참가 단체 소구경 3자세 우승 등

사격부(코치=김태호·학생과)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제 6회 경찰청장배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해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에서 입상했다. 단체부문은 소구경3자세 우승과 소구경복사 준우승을 차지했고, 개인부문에서는 △소구경3자세 1위=이규용(사체3) △센타파 이어관총 1위=최시운(경상학부2) △자유관총 2위=이기삼(사체1) △소구경복사 2위=이규용(사체1) △스탠다드관총 3위=최시운(경상학부2) △소구경3자세 3위=김정환(사체2) 등에 입상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호 코치는 "올해 들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서 고생해준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 백상예술체전으로 크게 한번 모여 보자

체전 영화제 및 '구속자 석방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0일 폐막제

서울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유재하·국문4)는 백상예술체전을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다. 이번 백상예술체전은 지난달 23일 축구 예선전을 시작으로, 29일 축구, 30일 농구 예선전을 치러왔으며 각 종목들은 △8일=8강 △9일=4강△10일=결승전으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체전영화제가 도서관앞에서 국산차 판매와 함께 8, 9 양일간 있을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 도서관앞에서 열렸던 '수요영화제'와 접목해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상영된다. 이어 10일 오후 6시에 '구속자 석방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란 기치로 백상예술체전 폐막식이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단과대 품물연합회(이하 단총연)의 사전 감봉으로 시작되는 이번 폐막제에서는 여는 마당으로 1학년 울통패의 공연, 백상체전 시상식이 있은 후 △동국문화회=시낭송 △가극단 '금강'의 공연 △본교 구속자 가족의 인사말 △

전체합창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닫는 마당으로 박학기 공연, 단총연의 대동놀이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유재하 비대위 위원장은 "백상체전은 단지 운동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체학생들을 모두 모아줄 수 있는 매개체이며, 총·부총학생회장 등 구속자들과 함께 이로 파급된 여러 문제점 등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내는 자리"라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경주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오문식·불교3 이하 비대위)가 주최하는 '97 백상체전은 오는 8일까지 예선전이 치러지고, 9일부터 10일까지 본선경기가 펼쳐진다. 지난 2일까지 치러진 예선결과와 남은 경기일정을 살펴보면 △축구는 6일-정산·산안공, 법(야):국관, 영문:화화, 7일-행정:정산야, 진통:사북, 경제:경영(야), 8일-불교:정산, 중문:관경, 가교:국악, 불동:국악 △야구는 6일-경영:회계, 경제:미술(관경, △씨름= 6일-수교:사체, 7일-조경:정산, 8일-정산(야):국통과 화학의 승자, 가교:불동 △축타 리기=6일-사체:고미사, 가교:수교, 7일-경영(야):회계, 8일-조경:관경, 정산:자체와 고미사의 승자 등이다. 예년과 달리 이번 백상체전의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본선경기가 끝난 후 종아제가 열린 예정이다.



사진은 공대농구장에서 백상체전 예선전을 치르는 모습

생물, 산안공, 영문, 중문, 국통은 예선통과) △발아구는 6일-국관:사북, 회계:정산, 생화학:불교, 7일-불동:산안공, 사체:경영, 생물:경제, 8일-수교:정산, 정산(야):철학과 의대의 승자 △축구는 6일-관경(야):경제, 회계:법, 정산:국통, 7일-한의대:의대와 화학의 승자, 정산:법(야), 8일-사체:생물 △배구는 6일-국악:불동, 7일-가교:국악, 8일-불동:가

교 △씨름= 6일-수교:사체, 7일-조경:정산, 8일-정산(야):국통과 화학의 승자, 가교:불동 △축타 리기=6일-사체:고미사, 가교:수교, 7일-경영(야):회계, 8일-조경:관경, 정산:자체와 고미사의 승자 등이다. 예년과 달리 이번 백상체전의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본선경기가 끝난 후 종아제가 열린 예정이다.

이밖에 처음 열리는 종아제에서는 바라밀 공연과 노래자랑을 비롯한 즉석게임이 개최되며, 노래자랑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일까지 비대위 사무실과 각 단대 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측은 "대상을 비롯한 각 부분별로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보리수

### 종교박의 구도(求道)

이봉춘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불전 본생담(本生譚)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붓다의 전생이야기가 실려있다. 전생의 붓다는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을 듣기 위해 주저함 없이 나찰(那剎)에게 몸을 내 던진다. 또 비틀기를 좇는 굽주린 매에게 자신의 온 살점을 저며내어 먹이고도 있다. 도의 완성과 중생구제를 위한 사신(身)의 구도행은 이 외에도 무수하게 나타난다. 붓다의 위대한 인격은 이 세상에서 비로소 갖추어 진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던져가며 오랜 생을 거치면서 쌓아온 결과임을 본생담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붓다의 전생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를 흔히 종교적 수사법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신앙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한낱 설화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설화들은 적어도 두가지 점에서 분명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자기 삶에 대한 치열한 구도적 정신과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담위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가지 행위가 완결될 때 우리의 삶은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만큼이다. 이 같은 구도적 정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진리 또는 종교의 세계와 관련해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닐 터이다. 그것은 가치있는 자기 삶의 완성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빛을 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뜻에서 최근 AIDS백신 생체실험 대상을 지원하고 나선 미국 내 국제 에이즈치료의사협회 소속 의사와 보건 관계자들의 목숨을 건 결단 소식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많은 것을 생각케한다. 현대의 흑사병으로도 표현되는 AIDS는 금세기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무서운 재앙이다. 이런 현실에서 AIDS백신 개발에 투두해온 일단의 의사가 이 생체실험에 자신들이 대상이 되기를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실험의 위험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이는 또 다른 자살행위이며 생명경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의사들은 연구를 완성하기 위한 강령의지와 이시대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고자하는 열원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설마할 찬반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지금 종교 밖에서 어려운 구도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만 한다. 그 치열한 정신과 끝없는 인간애에 감동하면서, 새삼 완성에 가닿을 구도의 길은 인간의 현실 도처에 펼쳐져 있음을 느낀다.

## 유례없는 중징계에 학생회 '혼비백산'

감사준비 불성실·일정위반 단위 예산 정치 결정

올해 총대의원회(의정=박병제·철4 이하 총대)가 실시한 상반기 감사는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예년에 비해 지나친다 싶을 만큼 중징계 받은 단위들이 많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주어나 경고 징계를 받았던 작년 대비에 올해는 예산집행 무기한 연기, 불신임안 발의 등 예사롭지 않다.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불신임안 발의=불교대 △무기한 예산정지 =사과대, 교편 △예산정지 2주=동아리연합회△경고 =사범대, 총여 △주=문과대, 경상대, 이부대, 생자대, 예술대로 나왔으며 징계사유별로는 감사자료 지연이 6개 단위로 가장 많고, 예산집행 문제점, 파감 사주체들의 불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더불어 감사징계 누적으로 인한 중징계가 많았던 단과대였다. 감사징계는 누적을 원칙으로 항상 이전 징계보다 강도높은 것을 시행한다. 기령 불신임안은 최소한 한번 이상 징계를 받은 단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결과가 극단

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학생회에 대한 사업평가와 이의 공개를 통해 학생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생회가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실시될 때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 준비나 자체감사가 소홀한 점 등 감사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당국의 학생운동 탄압과 더불어 계속되는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들의 연행·구속 및 학생회의 일꾼들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도 감사의 원칙과 목적에 반하는 학생회의 활동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총대의원회의 입장이다. 이번 감사와 관련, 유재하 비대위 위원장은 "감사 시기에 총·부총학생회장의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단신동성이 있었고, 계속되는 공안탄압속에 한총련 사수 및 학생회를 꾸러내 거는데 힘이 겨운 상태였다"고 해명하면서, "감사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 결과가 승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당시 상황에서 감사일정을 그대로 이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총대의 한 관계자는 "단위들은 학생회 강부본에서 상황이 어려우니 만큼 감사일정을 느긋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감사시행의 목적은 분명 감사를 통한 학생회 강화와 학생들의 대표기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학생들에게 명확히 제시해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제출과 감사일정 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회는 분명 학생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표기구이고, 이에 따르는 책임감은 막중하다. 사소한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 정당성과 투명성은 명확해야 한다. 하물며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평가를 제출해야 하는 감사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 학생회에서 감사 때 빠진 소극적인 태도는 믿고 지지한 학생들의 신뢰를 무신한 처사이다. 최정식 기자



지난 1일 교무위원회실에서 동국대-영화진흥공사간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은 송석규총장과 박규태 영화진흥공사 사장이 협조서에 서명한 후의 모습.

## 참사람 봉사단, 명동에서 자원봉사활동 유네스코 학생회·손짓 사랑회 참여

본교 참사람봉사단이 KBS·중앙일보 주최로 실시하는 '제4회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거리캠페인으로 △02대의 적극 참여 유도 △개시판 △연령층에 따른 사회문제 인지도 조사 △서명운동 △연령별로 해결 방안 제시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청소년 문제에, 단과학과 음니

버스 형식의 보도 프로그램, 수화 공연, 간접가요 등의 공연이 진행 된다. 한편,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는 △자원봉사의 방과후적 사회분위기 조성 △자원봉사의 질적향상 노력 △자원봉사의 새로운 유형 및 아이디어 개발 △행사기간의 자원봉사주간 정착을 목적으로, 전국 각처에서 봉사활동의 축제분위기를 유도해, 범국민적인 봉사활동의 여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오를(6일)부터 12일까지 단과대 개인별로 하루씩 실시되며 활동보고서와 사진을 근거로 평가해 오는 12월 5일에 시상한다.

## 고속동성

▲ 공로명(아시아지역부 석좌교수)=지난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통일 고문회의' 참석차 독일, 폴란드 등 유럽 순회. ▲ 홍윤식(역사교육학)=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한·일 불교공동 연구차 일본 용곡대 방문.

동대신문 기획 광고

녹두사거리에서 후문까지 팍팍 막히는 등·하교길 짜증나지 않습니까?

일방통행, 일방통행, 1만 6천 동국인 모두의 바람입니다.

동대신문사

# 단과대 학술제 “따로 또 같이”

## 단위사정따라 일정 상이... 노래자랑·체육대회 등 개별행사는 내실

올해 단과대 학술제는 각 단위 사정으로 예년에 비해 분산돼 실시됐다.

이부대, 문과대, 법대는 이미 학술제를 개최했으며 예술대, 생지대 등은 이날 말에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에 학술제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단과대들이다.

**사범대** | 오늘(6일)부터 9일까지 '학림축전, 그 희망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모티브에 학림축전을 개최한다.

오늘(6일) 오후 1시 봄비나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체전 각 종목의 결승(6~8일)과 각과에서 준비한 행사로 스가교과=부페(8일 오후 5시 조리실습실) △국교과=학술제(7일), 다습가요제(8일 오후 6시 소

강당) △역교과=요리대회(6일 오전 11시 봄비나), 영화상영(8일 오후 6시 학림관 로비) △수교과=컴퓨터·학술·문예부 등의 발표회와 영화상영(312) 등이 열린다.

또한 총·부총학생회장 탄원서명운동과 구속자 영치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의 행사도 축전기간에 함께 진행된다.

한편 폐막제는 9일 오후 5시부터 각종 시상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경상대** | 오늘(6일)부터 7일까지 '동백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기간동안 △사전전="애국경상의 1년나기 자주창년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6일부터 7일까지 동국관 2층에서 전시 △삼살놀이마당="민속놀이", "영삼이를 잡아라", "보

물찾기" 등이 동국관 앞에서 7일 오전부터 실시되며 △체육대회=축구·농구 결승전이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한편, 풍물대 '한대거리'의 공연과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노래경연대회' 등의 준비행사는 7일 오후 5시 동국관앞에서 실시된다.

**사과대** |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 발전이어(Volunteer!) 행동선언!'이라는 가치 아래 '능금제'를 개최한다.

행사일정은 △독재박물관, 이주노동자 관련 상설전시회=13일부터 17일까지 △체육대회=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전과 16일에 결승전이 치러지며 △사과대 영화제=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모의 대선공정회', '집체극', '문화공연', '노래자랑' 등의 대동행마당은 17일 동국관 앞에서 실시된다.

**공과대** |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소위된 나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모티브에 원흥대동제를 실시한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체육대회 각 종목 준결승 및 결승(8,9일) △대선과 관련한 학우들의 의식조사 및 농구장 확보를 위한 여론조사(7일) △학생자치권 수호와 한총련 사수를 위한 기획선전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9일 오후 6시에는 길놀이, 노래자랑 등의 폐막제가 만해광장에서 실시된다.

# 열린 동연제 오는 9일 개최

## 녹두거리문화제 및 정보사냥대회 등 다양한 행사

제13대 동아리연합회(회장=김명희·역교4)는 '97 열린 동연제'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다.

'그들만의 잔치, 대신-노동자 계급을 옮겨주고 관공화자' '검열·삭제... 표현의지를 박탈당한 우리의 자유를 촉발하자'라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대선관련 학내 여론조사와 이를 접목한 2인 3각 경기 △2·3점 슛 농구대회=참가인원은 남자3명과 여자1명으로, 예선을 슛대회로 치렀으며 본선은 오는 7일부터 걸거리 농구대회로 명칭해 결승전은 오는 10일에 있다.

△테마가 있는 거리 문화제=전체 기조에 맞추어 대선에 관한 거리 문화제와 '87년 노동자 대투쟁 10주년 기념'과 '창작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후문에서 학생회관까지, 불상앞에서 전시한다.

△불법영화제=오는 9일 오후 4시부터 중앙당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명성6일의 기록'을 상영한다.

△인턴넷 정보사냥대회=지난 2일부터 오늘(6일)까지 배포하는 문제를 오는 7일과 9일 양일간 답안과 답안경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

며, 수상자 발표는 오는 10일에 있다.

한편, 녹두거리 문화제는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탈'의 길놀이'를 필두로 △1부=중구 주요 인사와 축하인사, 분계구들의 공연 △2부=주인학생 가요제 △3부=초대 가수 '천지인' 공연 △4부=각종행사 시상식 및 폐막식으로 진행된다.

## 대학원 대표자 회의

### 사업보고·감사위원회추출 등

제13대 대학원 총학생회(회장=문안식·사학과 박사과정 4학기)는 오는 10일 오후 6시에 하반기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총학생회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감사위원 위촉 △대학원내 생협 이사회에 관한 회칙개정 △학칙 개정 내용중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권 규정에 관한 입장 정리 등의 안건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문안식 회장은 "총학생회의 1년을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원우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번 회의를 개최하는 소감을 밝혔다.

## '탈퇴 통한 새로운 연대질서' 압도적

### 총투표 결과 따른 사과대 행보에 귀추 주목

사과대 학생회 (회장=이왕재·사회4)는 지난날 30일부터 2일까지 3일동안 '한총련 불탈퇴·탈퇴와 이후 사과대 학생회의 행보'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6백49명의 사과대 학생중 3백60명이 참여해 55.4%의 참여율을 보인 이번 총투표 결과는 △탈퇴후 새로운 연대질서 모색=2백10명(58.3%) △불탈퇴 후 한총련 내부 혁신=81명(22.5%) △탈퇴 후 사과

대 학생회 독자행보=52명(14.45%) △불탈퇴 후 한총련 사수·강화=7명(1.95%) △무효=10명(2.8%)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2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학생운동 혁신과제 제안과 토론을 위한 자유발언대회'가 연기돼 오늘(6일) 오후 1시에 동국관 앞에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총투표결과가 발표된다.

## '취업전선에 교수 나선다'

### 취업난 제자들 위해 50여 그룹 방문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취업과는 취업홍보위원을 선정, 지난 9일 '취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취업홍보위원은 각 단과대 학과장과 학과장 추천 1명의 교수로 구성되었으며 취업과 전담하여 오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약 50개의 그룹을 방문하게 된다.

김병수 취업과 과장은 "전쟁이라 불리는 취업난에 처한 제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켜겠다는 스승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획인 만큼 학생들이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회사쪽에서 학교로 직접 찾아와 자사 홍보를 하는 기업체 설립을 돕는 지난 9월부터 지난 주까지 한화, 태평양생명, 현대해상화재, 롯데, 동부생명 등의 주체로 열렸으며 앞으로의 실시에정 업체는 다음과 같다.

△삼성그룹=21일 중앙당(설명회) 도서관앞(상담 및 원서교부) △동아건설=13일 세미나 3실, 14일 취업자료실 △농어촌진흥공사=9일 세미나3실 △제일화재해상보험=6일~9일 취업자료실 △ENEX=10일 취업자료실.

## 중앙도서관을 진단한다 ① - 도서신청

### "기다림에 지친다"

#### 희망도서관입 최대 1백 80일 소요

본교 중앙도서관(관장=임호일·독어독문학)의 도서신청후 열람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도서관내 1층 컴퓨터실의 오른쪽 벽에는 학생희망도서 신청서와 이에 관한 안내게시판이 비치되어 있다. 이 게시판은 학생희망도서신청에서 도서의 열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6일가량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1백 8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 2층에 비치된 학생희망도서 신청서와 2층의 컴퓨터를 이용한 도서신청 방법을 아는 학생이 거의 없어 이 방법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주로 신청서를 이용해 들어오는 도서신청은 한달여의 수급기간을 거치며 도서관장, 부관장, 열람과장, 교수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도서신청위원회가 소집된다. 도서신청위원회는 작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신청된 도서를 선별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소집횟수가 적고 신청도서의 자세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본교 도서관은 본교와 시설이나 위상이 비슷한 다른 사립대의 평균 장서보유 1백만권을 밑도는 90만권(서울캠 60만권, 경주캠 30만권)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본교의 교수들이나 대학원생들은 책이나 논문의 집필을 위해 외부 도서관을 이용, 자료를 찾는 실정이며 학생들 또한 과제를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책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예대와 법대 학생들의 경우 전공·교양 관련 교재의 확충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컴퓨터, 물리, 화학 등의 이공계서적도 크게 모자라 이분야의 책을 구하려는 학생들이 애를 먹고 있다. 공과대의 이상욱(컴공2)군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컴퓨터 관련분야의 서적이 아직도 옛날 것이 태반"이라며 전공서적의 부족을 호소했다.

이처럼 신간도서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도서관내 1층

실제로 도서신청위원회가 생기기 전보다 생김후에 희망도서 열람이 늦어지고 있다. 교수신청도서는 바로 신청되는데 반해 학생희망도서나 도서관 신청도서는 도서신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 있어 실효성에 비해 요식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학생희망도서 신청과 관련해 도서관 김종철 수서사무계장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책정과 도서현황 검토를 통해 도서를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도서신청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필요한 책을 빠른 시간안에 받아볼 수 있고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중앙도서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유철주 기자

## 회전문대

### 외로운 상어!

O...가 단과대는 체육대회 예선전을 치르느라 분주한데 일부수업은 경기일정을 위해 휴강까지 되었으나 경기에 참가하거나 응원하는 학생들은 극소수라고.

이는 휴강을 교묘하게(?) 다른일에 활용하는 학생들 때문이라고 하니.

이에 어떻게 휴강을 허락받은 한과대표 목봉아 노래 부르길, "어딜 갔어. 이 경기중에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돼. 휴강까지 되었는데, 나만 혼자 내버려두니~"

### 존재 가치

O...동국관 여학생 휴게실이 여학생만의 자기공간으로서 자리를 잃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여학생 휴게실의 관리를 맡고 있는 야간강좌 총학생회(이하 야총)가 물품보관, 바둑대회 개최 등 야총의 사업이나 행사에 휴게실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데.

이에 휴게실에 들어온 한 여학우 "여학생 휴게실에서 휴일점이라니...열린대학, 열린 교육의 취지를 야총이 가장 잘 실천(?)하는군요"

### 후시, 슈퍼 3백2조!!!

O...저녁 식탁이 위험하다(?) 식탁에 지주 올라오는 쇠고기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키는 0-157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올 8월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네브래스카산 쇠고기 1만1천톤중 단 13%만이 검사만을 마치고 시중에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에 회전문대자 일 "쇠고기에 덩(?)으로 0-157까지... 역시 미국은 인심이 후한(?) 나라이군요"

### '잘'하자

O...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하려면 만해광장으로 가시오!

지난주 목요일, 불상앞에서는 '아무개 밴드의 공연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나는 연주에 지나가던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경청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명진관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에 본 회전문대자 한마디, "불상앞과 만해광장의 차이는 불상앞에서 연주를 '잘' 하면 '잘'하는다는 거지요"

## 생활 4차 모니터링 실시

### 친절·가격 등 평가기준... 이발소는 요금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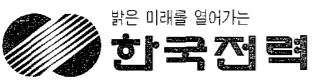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활)는 오늘(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점, 자판기, 잡화점, 안경점, 이발소, 기화사, 복사실, 문구점, 사진관, 컴퓨터점 등 지역·입대 매장 및 식당, 분식, 매점을 대상으로 4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교직원 식당은 교원, 직원 모니터가 학생식당 및 분식 매점은 교원, 직원, 학부, 대학원 모니터 요원이 중심 또는 식식중 주 5회이상 방문·시식해서 모니터링을 하며,

기타 매장은 주로 학부·대학원생이 주 1회이상 방문하게 된다.

이번 모니터링은 식당 및 분식점의 경우 위생상태, 음식 품질, 친절·봉사도, 가격, 기타 매장의 경우 매장 청결 및 분위기, 가격의 적절성, 물품구비 정도, 친절·봉사도 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한편 생활은 지난 1일부터 이발소를 학생 이발 요금 기준 3천5백원에서 4천원으로, 교직원 이발요금 기준 5천원에서 5천5백원으로 인상했다.



밝은 미래를 일컫는  
**한진전력**

21세기 에너지 - 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 전구에 필라멘트가 없다 ?

우리생활을 환하게 밝혀주는 형광등과 백열등... 그러나, 좀 더 효율적이고 오래쓰는 전등은 없을까?

한국전력 신기술그룹 광응용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분야의 혁신을 위해 21세기의 빛을 바꾸어 갈 '무전극 황전등'의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보다 깨끗하고 질 높은 에너지를 개발하여 문화생활 향상과 환경보전에 앞장서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무전극 황전등 '이런?'  
전구 내부에 필라멘트나 전극이 없이 아르곤이나 마그네슘 등에서 발생되는 고주파를 전구 내부의 황에 인가하여 방전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빛을 이용하는 조명기로서 기존 전등에 비해 활동해 황상된 효율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징  
• 효율율 100 - 140 lm/w  
• 긴 수명 약 2만시간  
• 무공해 발광물질로 황을 사용  
• 높은 연색지수 80 - 90  
• 해로운 자외선이 없음  
• 약한 적외선으로 열이 적음

■ 발광 원리  
전기 에너지  
→ 전자기 에너지  
→ 빛

■ 각종 전등의 수명 비교

황전등(예시)	10,000
고급 나트륨등	15,000
황광 수은등	20,000
발광다이오드	25,000
저압 나트륨등	30,000
고압 수은등	35,000
백열등	1,000

취업난과 정부의 역할

시사논단

4명중 1명만 살아남는 취업대란

정부, 기업 활동기반·인력계획·노동시장 유연화제도 등 마련해야

금년 하반기 취업을 원하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32만 명으로 추정된다. 작년 하반기 27만 3천여 명보다 18%가 증가한 수치이다. 취업희망자를 분류해보면, 졸업예정자가 17만 2천명, 취업재수생 12만 5천명, 전직희망자 2만여명 등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채용인원은 지난해의 9만 2천명보다 25%나 줄어든 8만명선에 불과하다. 대졸자 4명당 1명만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취업대란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먼저, 정부가 정책개발과 동기부여를 통해 국내에서 기업활동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올해 2/4분기중 제조업 상품근로자는 전년 대비 5.4%가, 일용직은 9.2% 감소했고, 서비스업 상품근로자는 4.3%, 일용직은 11.2% 증가했다. 국가정책의 핵심인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96년 2/4분기에 국내 제조업 일자리 10만 3천여 개가 감소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은 민·관 구분 없이 합심하여 자국으로의 기업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조장하고 있는 듯하다. 높은 지대, 정부의 규제정책 및 행정적 지원의 부재, 고임금 등의 문제가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외국의 기업유치정책이 한국기업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일자리를 줄여줄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정책의 목표는 바로 자국민의 고용증대 및 직업능력 향상이다.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제도, 재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 평생교육이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발전시켜 기업의 구조조정이 오히려 고용사정을 호전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학 및 인력양성기관이 수요자 중심적인 교육체제를 확립하여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을 심도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김상묵 법정부정학부 교수

넷째, 구인과 구직을 위해 국민과 기업들이 지혜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용정보망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각종 구인·구직정보, 교육훈련, 기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학력 실업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당사자의 실의와 좌절, 가정의 황폐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이며, 교육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취업난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사설

취업생 적극적 자세 가져라

이미 취업전쟁은 시작되었다. 오랜 경기침체 속의 경영난으로 생존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인력재배치나 명예 퇴직 등으로 감원조치를 취한데 이어 채용규모도 대폭으로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취업희망자는 32만명인데 채용인원은 8만명으로 경쟁률은 4대 1, 즉 네명중 한명만 취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세명은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거나 숙련된 '백수'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취업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3학년생을 대상으로 '참사탐안증'을 통한 취업특화교육을 실시해 예년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앞다퉈 취업대란이니 대공황이라는 표현으로 취업포도에도 여념이 없어 취업준비생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원서접수는 커녕 원서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라 시간이 갈수록 취업준비생의 한숨도 깊어만 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취업준비생의 적극성일 것이다. 학점과 토익의 점수가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라면 앞으로 남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남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태도만이 승패를 판가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숨 쉬고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없는 현실에 취업준비생은 물론 학교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매년 실시해 오던 취업특강 및 모의면접 개최뿐만 아니라 기업체설명회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편 각 단과대 교수 2인으로 구성된 취업홍보위원이

또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취업문제는 비단 올해의 취업준비생에게만 국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선후의 악화된 경제사정과 취업재수생의 비열등을 고려해 봤을때 내년 취업실태 역시 올해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학생들 역시 오늘의 취업전쟁을 '간간히 불경'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경주캠 학생회 무사안일주의 버리길

본교 경주캠 학생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차례 계획했던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모임과 각 단과 및 자치기구들의 한 학기 사업에 구멍이 생긴 듯하다.

무사안일주의는 중운위에서만 나타나지는 처사가 아니다. 더욱 깊숙히 들여다보면 각 단과 및 자치기구에서도 만연한 문제이다. 이는 그들의 선거공약과 학생회 사업의 무책임한 사태로 뒷받침 할 수 있다. 각 단과 학생들과의 결연한 약속이자 학생회 사업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공약을 아무런 성과없이 허사만을 남겨 놓고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사업계획서에는 학생들의 요구를 담아내려한 고민과 책임의 무게가 구상될 당시 불대학생회장은 여타 학생단체장들의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몇몇 학생기구장들의 이유 없는 행위는 실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2학기 개강도 한 달 가량이 지난 지금 몇 차례의 중운위 열렸지만 그때마다 학생기구장들의 불참으로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중운위는 학생들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위상은 땅에 떨어지지 오래이며, 역할과 책무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총학이 탄핵된 이후 몇 달간의 카타란 공백기간을 딛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불대학생회장은 여타 학생단체장들의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몇몇 학생기구장들의 이유 없는 행위는 실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2학기 개강도 한 달 가량이 지난 지금 몇 차례의 중운위 열렸지만 그때마다 학생기구장들의 불참으로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총동창 회비 납부, 공간 배치 문제, 백상체전 등 총학을 다루는 여러 안건들이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의 미달로 번번이 회의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 더욱 커다란 충격을 준다.

중운위는 학생들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위상은 땅에 떨어지지 오래이며, 역할과 책무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총학이 탄핵된 이후 몇 달간의 카타란 공백기간을 딛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불대학생회장은 여타 학생단체장들의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몇몇 학생기구장들의 이유 없는 행위는 실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2학기 개강도 한 달 가량이 지난 지금 몇 차례의 중운위 열렸지만 그때마다 학생기구장들의 불참으로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총동창 회비 납부, 공간 배치 문제, 백상체전 등 총학을 다루는 여러 안건들이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의 미달로 번번이 회의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 더욱 커다란 충격을 준다.

다구나 이러한 학생회의 고질적인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학기 때 우리는 신성한 백상탑 앞에서 사발식을 가지며 '학생회의 도덕성 회복'과 '신뢰 회복'을 목놓아 외치던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 후 번번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그들의 도덕성과 신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묻고싶다.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을 우롱하지 말았으면 한다.

개인휴대통신 진단

PCS, 고객 뒷통수 때렸다

턱없이 부족한 단말기·가격인상에 예약가입자 불만 심화

지난 8월 1일 시험서비스를 시작으로 '싸고 통화품질이 좋다'고 외치며 이동전화에 고객을 내민 개인휴대통신(PCS). 거리 곳곳에서 선전을 하며 예약가입을 받는 도우미들과 어릴거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는 PCS에 대한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끌어모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내년쯤이나 1백% 상품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단말기 부족 현상은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보다 2개월이나 빨리 서비스를 실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상품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단말기가 부족해 실질적인 상품 서비스가 늦어지고, 단말기 가격이 애초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9월까지 예약가입을 했던 예약가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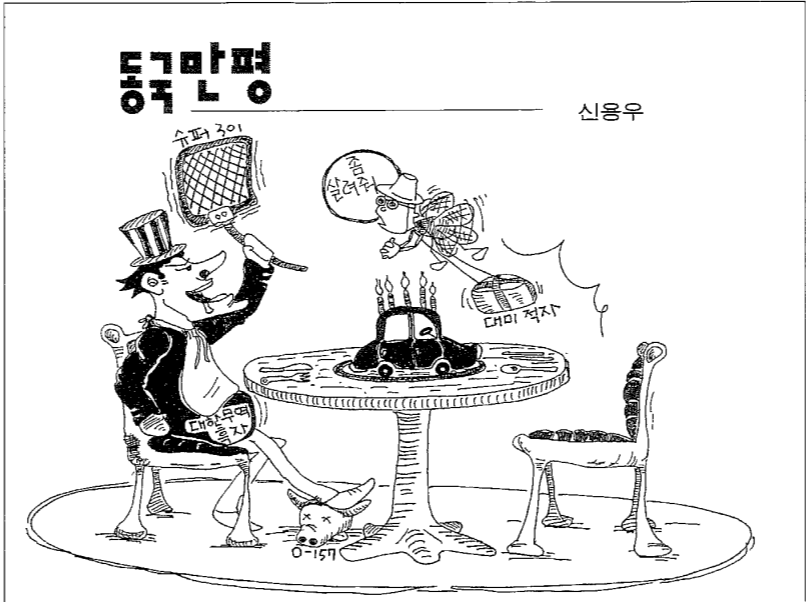
단말기 가격 역시 제조업체들이 고객들을 요구해 당초 발표했던 20만원대에서 셀룰러폰(가존 이동전화) 가격보다도 비싼 35-40만원선으로 인상,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예약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PCS업체들이 PCS를 '싸고 품질 좋은 차세대 이동전화'라고 강조하던 말이 거짓말이 된 것이다.

한국통신 프리텔, 한솔 PCS, LG정보통신 PCS 3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상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단말기가 턱없이 부족해 현재 가입자 중 영업사원들 극소수만이 PCS를 이용하고 있어 명목상 상품 서비스이지 실제로는 상품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PCS 예약 가입을 했다는 사과패의 한 학생은 "단말기 가격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랐고, 단말기도 부족해 언제 이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황당할 뿐"이라며 "정말이지 뒷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며, 화까지 나는게 사실"이라고 불만을 털어 놓는다.

9월말 현재 예약 가입자는 2백만여명인데 반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단말기 출고수는 1백60만여대로 연말까지도 단말기

고객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어 공급 증이 생기면 찾아가는 대리점. 그러나 현재 PCS대리점은 고객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 못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이다', '본사에서 알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식의 대답은 고객들에게 더욱 더 큰 불만을 초래하게 한다.

현재 PCS 3사는 단말기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2월까지 예약기간 연장, 단말기 순차 공급, 11월 실가입자 기본료 및 가입비 면제, 3백분 무료 통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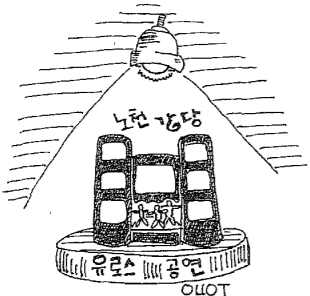
한국통신 프리텔에서 보수를 받고 고객을 끌어 모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동훈(가명 대학생 21)군은 "나에게 가입 신청을 한 고객들이 '언제쯤 단말기를 받을 수 있는가', '가격이 왜 올랐는가'라고 물으면 본사에서 정확한 지시사항이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내가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여

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고, 나 역시 본사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PCS업체는 우선 단말기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객에게 단말기 가격 인상 원인을 밝혀야 하며,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용환 기자

Advertisement for Chonnam University's 'Chonnam' (천리안) servic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lock with a mouth on the face, symbolizing 'Chatting FREE!'. The ad lists various benefits like 30-hour free chat, 10-hour free chat, and a 1-month 100,000-won chat service. It also mentions a 12th anniversary gift and a 'Chonnam' mascot character.

동약론



마지막 콘서트

지난 1일 오후 6시 유로스 공연이 노천강당을 살린다는 취지로 열려 초기를 경주권의 정경을 수놓았다. 공연을 후원한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노천강당이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온 것 같다. 학우들의 오랜 숙원으로 건립된 이래 지금껏 방치돼 있었지만 유로스 공연을 계기로 많은 동아리들이 이곳에서 공연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다.

울 초 60명 남짓한 인원이 모여 노천강당에서 치른 공연 출범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4백여 명이 모여 열광하고 있는 이날의 현장을 의심할지도 모를 일이다.

"준비된 10곡 중에 이제 거의 반은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찬조 출연을 해주실 뮤트피아 여러분들을 모시고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라는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마자, 음악감독인 뮤트피아의 첫 노래가 노천강당의 마이크를 통해 울라나를 좁에는 이미 해는 지고 밤 하늘에는 별빛이 공연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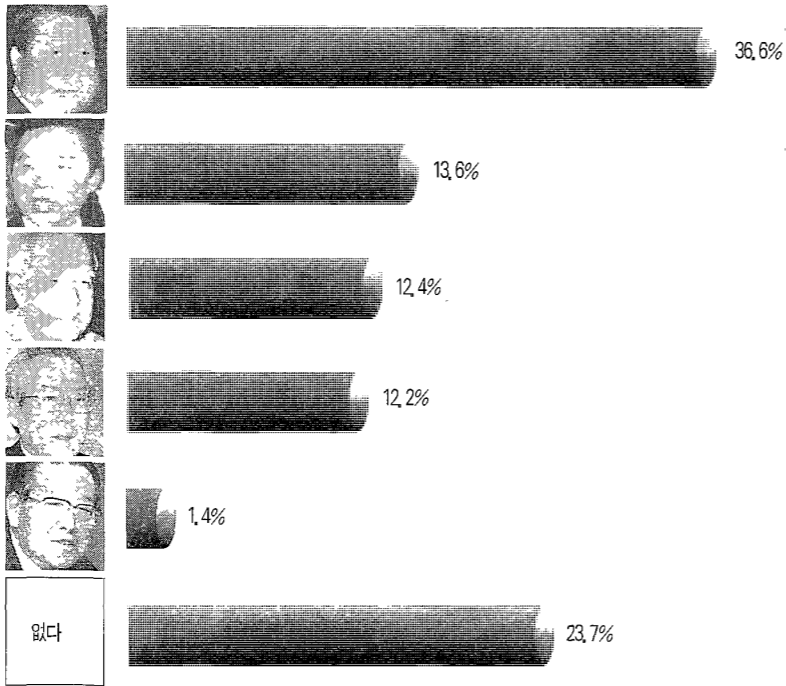
진흥관에서 아간 수업을 마친 학생들도 노천강당의 불빛에 이끌렸는지, 유로스의 공연임을 미리 알았는지 종종 걸음으로 모여 들기 시작한 여기저기에서 구경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늘어만 가고.

시계가 8시를 향하자 이날 공연도 막바지로 접어들어 관중들은 하나둘씩 공연장을 빠져 나간다. 공연장을 빠져 나가던 한 97학번 새내기 "운동장 한쪽구석에 위치한 건물이 노천강당인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공연을 하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 왜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위치가 외져서 찾아 오기가 힘들었지만 이런 공연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그러나, 유로스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올해 노천강당을 이용 하기를 원하는 동아리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즉, 올해 노천강당을 이용해 열린 공연은 유로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 가고 있다. 이해경 기자

# 김대중 36.6% 1위... DJP단일화 지지율 변수될 듯

## 국정운영능력 갖춘 대통령 원한다. 가장시급한 과제 '경제회복'



대학생 90.3%는 '내게 선거권이 있다면 투표를 하겠다'고 나타났다. 그만큼 이번 대선은 선거권의 유·무를 떠나 대학생들의 관심이 크다고 하겠다.

만20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한 나이로 생각 56%, 투표가능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26.9%, 투표가능 연령을 높여야 한다 8.7%로 나타났다.

한편, 대선후보자들의 TV토론회가 지지후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본 결과 39.62%로 밝혀졌다. 역대 대선 최초로 실시된 TV토론회에 대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인격 등을 잘 나타내지 못했다는 여론의 소리가 높는데 그 원인을 토론자들의 질문준비부족 29%, 답변에 주어지는 짧은 시간 27.7%, 후보자들의 무성의한 답변 20.2%, 사회자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 5.9%로 평가됐다.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도덕성 18.7%, 정치적 경험 및 연륜 6.9%, 출신 및 정당 1.6% 보다는 국정운영능력 38.5%와 개혁과 쇄신을 위한 의지 31.7% 이 더 중요시되고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회복 37.4%, 부정부패추방 21.9%, 민주화정책 12.1%, 교육개혁 10.9%, 안정된 정치 7.7%, 통일 5.7% 순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들의 결과를 보면 DJP 단일화의 여부에 따라 평가를 날 전망이다. 5차대결시는 김대중 36.6%, 이인제 13.6%, 이회창 12.2%, 조순 12.4%, 김종필 1.4%이고 김대중 후보로 단일화 된다면 김대중 후보가 40.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반면 이인제 13.1%, 이회창 11.9%, 조순 10.7%로 1강3중 구도를 나타냈다. 반면 김종필 후보로 단일화 된다면 없다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았고 이인제 22.3%, 조순 20%, 이회창 14.8%, 김종필 3.2%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다차대결시에도 김대중 후보가 34.9%로 선두를 달렸고 이인제 13.4%, 이회창 11.3%, 조순 11.2%, 박찬종 3.1%, 김종필 1.1%의 지지도를 보여줬다.

이회창 후보에게 적잖은 타격을 끼친 아들 병역문제에 대한 질문에 부당한 이유로 병역을 기피함으로써 불신감을 준다 38.5%,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17.7%는 응답과 함께 이회창 후보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7%, 후보자의 자질이 중요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12.7%는 의견도 나타났다.

김대중·김종필 후보의 연속 대선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지나친 집착으로 정치적 인물 양성을 방해한다 48%, 출마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27.7%, 특정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지역 감정을 다 조장한다 11.8% 정치적 연륜과 경험으로 볼 때 당연하다 8.5%로 답했다.

또한 조순 후보가 시장직을 중도 하차하고 대선 출마한 것을 묻는 항목에는 시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62.2%, 지방자치제를 무시한 처사이다 10% 라고 조순 후보의 대선 출마에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인제 후보의 신한국당 경선 결과를 불복하고 대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경선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40.2%, 대선구도 변경에 따라 난립후보 조장 23.7%,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문제없다 15.2%, 여론의 지지에 따르기 위한 행동 12.2%의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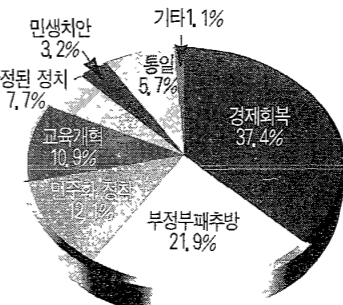
역대 대통령들의 이미지 조사에서 가장 이미지 좋은 대통령으로는 없다 45.9%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박정희 39.2%, 윤보선 5.1% 이승만 4.1% 순이었고 가장 이미지 나쁜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36.5%, 노태우 20.8%, 김영삼 18.9% 순으로 집계됐다.

집권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86.2%로 대학생들은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여·아의 경제와 균형을 위해서 50.7%, 부정 부패 근절 31.6%, 균등한 지역발전 9.5%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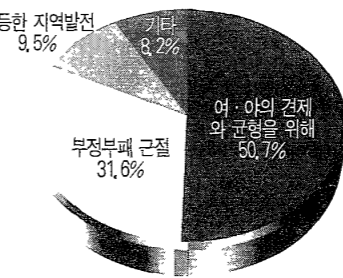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이 대선자금에 대해 기업인들의 돈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깨끗한 정치자금으로 쓰려면 상관없다 37.8%, 정·경 유착을 가속화시킨다 34%, 공명선거를 위해서 절대 받아서 안된다 19.5% 순으로 나타났다.

약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97 대선의 향방은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뤄지고, '위기의 한국'을 '부활의 한국'으로 바꿀 지도자를 대학생들은 간절히 갈망한다. 오인택 기자

본교 동아리 '통계조사연구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 까지 서울 17개 대학 873명을 대상으로 대선의식소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SA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 집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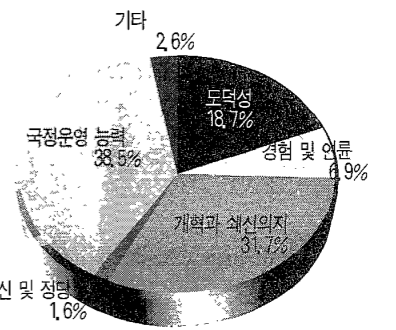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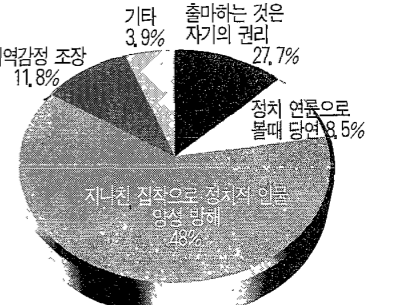
정권교체의 이유

기획-15대 대선 어떻게

- 총론
- '미디어 정치' 이렇게 지리 잡아 한다.
- 대권주자들의 경제정책 분석
- 대학생이 보는 대선
- 대선의 구도와 윤곽
- 올바른 유권자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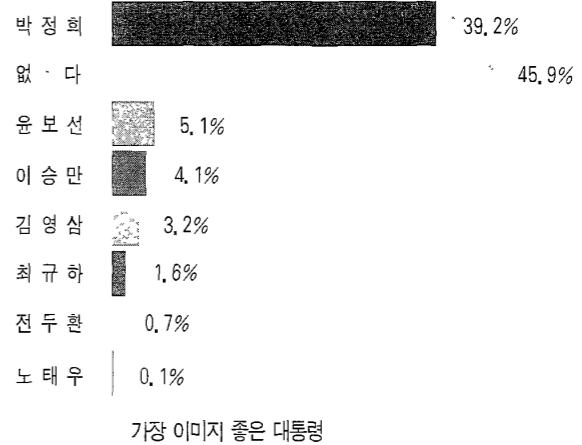
가장 중요시하는 대통령의 조건



DJP의 연속된 대선출마에 대한 생각



대선자금을 위해 기업의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생각



자료제공=통계조사 연구회

믿을 수 있는 친구-삼성



당신을 새롭게 하는 힘, 삼성에는 늘 변화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후문앞 양방통행 진단

# 일방통행 합시다

많은 사람과 많은 차량으로 항상 복잡하기만한 후문에서 북두사거리까지의 길. 차량과 학생·시민들의 이동이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 정밀하지도 발디딜 틈도 없어 이동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다. 이제 더이상 지옥같은 등·하교길은 싫다. 이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배죽배죽 튀어나온 간판



차량으로 꽂막혀 있는 길.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양제차량

## 양방통행으로 짜증나는 등·하교길 “이것 참..”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를 하는 동국이. 그러나 후문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동국이는 얼굴을 찡뿌린다. 자동차가 뿔뿔히 들어서 있고, 사람들은 차 사이로 오가거나 차에 막혀 꼼짝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짜증이나기 시작한다.

4교시 수업을 마친 동국이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학교 밖으로 점심을 먹으러 간다. 여지저지에서 ‘땡! 땡!’ 자동차들이 먼저 가겠다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고, 등교때 보다 사람이 더 많아진 그 시각, 동국이의 친구 중 누군가 함이다 내뱉는다. “점심을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라!”

북두 사거리에서 후문까지 1백여미터 남짓한 길은 도로폭이 좁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등·하교길 양방통행이다. 그래서 통행 차량이 많을 경우 그 길은 발 딛기가 힘들 정도로 혼잡해서 시민과 학생들은 물론 운전자들에게까지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등·하교시 학생들과 차량이 많을 때에는 학생은 학생대로, 차량은 차량대로 이동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의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무런 대책과 변화가 없어 그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 사고대의 한 학생은 “차가 많이 다닐 때 길이 막혀 정말 화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렇게 길이 좁은데도 후문이 있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운전자의 불만도 마찬가지. 한 택시 운전사는 “이거 완전히 시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과 변화가 없어 그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 사고대의 한 학생은 “차가 많이 다닐 때 길이 막혀 정말 화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렇게 길이 좁은데도 후문이 있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배죽배죽 튀어나온 간판과 양제 주차 역시 보도이용 불편에 한 몫을 한다. 학생들은 차량을 피하러 간판을 피하러 이중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아무런 대책이나 규제가 없다.

후문부터 북두 사거리까지의 양방통행이 즐거워야 하는 등·하교길을 짜증하는 등·하교길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김용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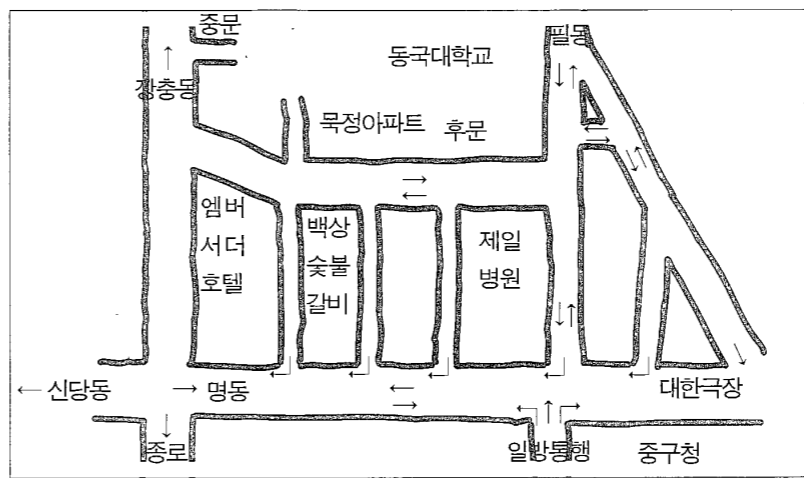
## 교통혼잡 최선의 대안 일방통행, 길길 멀다

제일병원 “환자때문에 안된다” 중구청·중부서 나몰라라  
사고 위험 곳곳에 도사려... 학교측, 적극적인 자세 보여야

‘후문앞 북새통’ 이는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하루종일 차와 사람이 서로를 피해 이슬이슬하게 스쳐 지나가고,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아예 콕콕 막혀 두사람이 지나다니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사람대로 차는 차대로 길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간단하다. ‘좁은 길에 사람과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이다. 좁은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동국대학교와 삼성제일병원의 하루 유동인구가 1만명 남짓. 더구나 그 좁은길 또한 장충동에서 명동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사람뿐만 다니기에도 복잡거리니 이 길에 승객을 태우고 올라오는 택시와 저를길로 가려는 자가용, 그리고 주변상가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까지 한데 뒤섞여 버려니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만다. 게다가 거리로 볼수록 튀어나온 입간판들이 보행자들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방통행이 최선의 대안이자 해결책이지만 이를 시행하기에는 넘어야 할 것이 참찮다. 실제로 95년에 총학생회가 중구청에 민원을 올려 일방통행을 추진했지만 목정아파트와 인근 상가의 반대 민원이 쇄도해 좌절되고 말았다. 삼성제일병원 역시 ‘환자수송’을 가장 큰 이유로 반대입장에 서있다. 제일병원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응급환자수송에는 1분 1초가 아쉽다.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림은 본교 주변악도. 화살표는 통행 가능한 방향.

일방통행을 시행한다면 차들이 그만큼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위험부담이 크다”며 특히 산모가 많은 병원의 특성상 진입로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급차량만 통행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입간판들을 없애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주는 보도블럭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입간판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중구청의 건설관리과에 문의를 하자 한 관계자는 “비정기적이지만 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간판을 트럭에 싣고 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속은 큰 도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좁은 골목까지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보도블럭 공사를 담당하는 중구청 토목과에 보도블럭 설치를 요구하자 관계자는 “기존의 도로 폭을 넓히거나 일방통행이 우선되지 않으면 보도블럭이 아니라 벽을 한 장도 쌓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일방통행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점으로 돌아가 일방통행의 필요성을 통행의 불편과 일련의 사항들을 중부경찰서 교통과에 호소하자 “그렇게 불편하면 동국대학교 명의의 사유서를 작성해 경찰청에 민원신청을 하라”고 잠잠

게 권유한다. 그러나 획기적인 대안 없이는 민원을 신청해도 95년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대안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여기서 또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방통행이 시행된다면 ‘어느쪽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느냐’는 것인데 이는 그림을 참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림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길 즉 퇴계로에서 신당동쪽으로 가는 길은 도중에 진입로가 많아 장충동 쪽으로 가기도 용이하다. 그러나 내려오는길은 퇴계로에서 동국대학교나 제일병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한 방향을 선택한다면 ‘내려오는쪽의 일방통행’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일방통행에 대해 학생과에서는 “오늘이라도 학생회와 대화를 통해 후문앞의 교통량을 조사하는등 일방통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제일병원에서 퇴계로쪽으로 땅을 매입해 정문을 퇴계로 쪽으로 크게 넓게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제일병원의 결정여부에 따르는 소극적인 방안이다. 사실여부도 확인 되지 않았을 뿐더러 얼마나 결실지도 모르는 제일병원의 “퇴계로쪽 정문”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학교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역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열린 대학으로의 개방도 중요하지만 동국인의 자리찾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김기영 기자

# 선경증권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시대를 엽니다

순수한 해외투자, 환차익도 기대!

## FIDELITY 수익증권

- ▶ 세계최대의 투신사인 미국 피델리티사의 수익증권을 국내 독점판매
- ▶ 달러로 투자하여 운용수익과 환차익 동시 기대 (선경증권에서 환전업무 대행)
- ▶ 입출금이 자유로워 장단기 투자 모두 가능 (연제라도 환매 가능)
- ▶ 자녀들의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필수 (상당요망)
- ▶ 이민이나 해외 장기근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투자대상

문의전화: (02)3773-8585 (바로바로)

PC로 돈도 벌고 레간자도 타고!

## 선경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 “MONEY마녀”

- ▶ PC로 가정에서 정보조회, 매매제결
- ▶ 접속방법 SK텔레콤 NETSGO : GO SKSHTS HITEL : GO SKSHTS
- ▶ 선경증권 본 지점에서 계좌개설 후 가입
- ▶ “MONEY 마녀” 디스켓 및 “NETS GO CD” 무료 배포중
- ▶ 레간자타기 HTS 투자수익률 경진대회
- ▶ 신청 기간 : '97.8.18 ~ '97.10.20
- ▶ 대회 기간 : '97.8.18 ~ '97.12.16
- ▶ 참가 자격 : 계좌 개설자 중 신청순 8,245명 (500만원 이상)
- ▶ 상품 1등(1명): 레간자(1,800cc) 2등(30명): 핸드폰 3등(50명): 100 / 주유권
- ▶ 수상자 발표 : '97.12.24
- ▶ 세부내용은 당사 각 지점에 마련된 설명서 참조
- ▶ 문의전화: (02)3773-8255 (빨리오오)

투자목적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 SK 공시채형 수익증권

- ▶ 안정적 고수익 저축상품
- ▶ 목표수익률: 실세금리 + α

## SK 주식형 수익증권

- ▶ 고수익 저축상품
- ▶ 주식, 지수선물, 채권 등에 투자

## RP

- ▶ 단기 최고 수익률
- ▶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연11%

## MMF·SMMF

- ▶ 하루를 맡겨도 고수익
- ▶ 최고 연11.08%

## CP

- ▶ 우량 기업의 어음에 투자
- ▶ 연평균 예상수익률: 12.5%

문의전화: (02)3773-8888 (8.10.8서비스)

SKS 선경증권  
社長 朴道根 (65년 상학과 졸)

### 책소개

####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둡고 불안하고 어지럽지만 꿈을 안고 내일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기쁨을 찾아갑니다.”  
97년 가을 조병화씨는 한권의 책이 아닌 하나의 음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96문학의 해 및 97문화 유산의 해 기념 한정 음반으로 '생의 시를 쓰는 사람들 Vol.1'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 이세춘추

“한국 현대 상황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한 인간이 힘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일제와 독재라는 부당한 세력 이후의 부도덕한 재벌의 횡포를 겪어온 삼대의 이야기.

이진행씨가 얘기하는 '우리사회의 가능성과 위험성의 한계를 점검하는 일'을 들여다보라. 출판사-지식공작소, 정가-9,000원

#### 창작교실

“여기 21인의 작가·시인의 창작적 고뇌를 담은 에세이들은 자기와 타자를 일치시키고자 전력을 기울여 산물이다.”

자기가 쓰기를 원하는 것과 남이 읽기를 원하는 글이 다르기에 작가는 고민하게 된다. 최초의 무엇을 쓰고 다음은 무엇을 쓰고 하는 작가와 시인들의 이야기가 술직 담백하게 담겨 있다.

실천문학사에서 문인 21명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엮었다. 출판사-실천문학사, 정가-7,000원

#### 위대한 리더십

“거개의 핵심은 스포츠드레스나 폴로 차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문화, 의사소통, 교육, 철학에서 솟아오른다.”

현대미디어에서 21세기를 향한 지식정보를 전한다는 취지로 발간했다.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역사인물들의 강력한 절대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비극극성과 소극성에 하나의 경종이 될듯하다. 출판사-현대미디어, 정가-9,000원

#### 바로잡습니다

123호 책소개 중 '빙송위기의 저자가 민병록으로 잘못 표기되었기에 이를 민병록으로 바로잡습니다.

밝고 푸른 하늘은 끝없이 높고 황금빛으로 화한 들판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형산강의 물은 아찔 햇살에 표묘히 안개 지고 그 위를 유유히 나르는 백로, 시계에 들어오는 푸른산과 조화는 천공이 그려낸 한쪽의 멋진 그림이다.

탈스러운 배, 붉게 채색된 사과, 자주빛을 띠고 익어 가는 대추, 황금빛을 발하는 모과, 한 송이 꽃이 된 갈나무,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아침 등교길에서 만나는 진경풍이다.

자연 풍광의 아름다움, 사계절 변화없이 들어내는 변화의 참스름, 결실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착함을 지닌 자연은 진선미(眞善美)의 집약체요, 모든 생명체의 모체인 것이다. 이 같은 자연의 큰 흐름 속에서 사람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괴리 속에서 표류하며 조화를 상실 한데서 모든 재앙은 시시각각으로 우리 모두를 죽음 속으로 몰고 간다. 이를 극복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천지합일(天地合一)은 동양의 선현들이 추구한 이상이었으며,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이정표요,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현실의 변화 속에서 흐르는 참모습을 망각할 때 인간은 불행에 자초하게 된다. 그러나 변화는 구원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현상 세계의 변화로부터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천지는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본체에서 본다면 사물과 내가 모두 다름이 없다.

## 자연의 품 달하나 천강에

이름 장자는 “천지여아병생(天地與我並生)하고, 만물여아동체(萬物與我同體)”이라 하였으니 이는 유한한 듯한 나의 생명은 그 근원이 무한 우주의 생명과 연계되어 천지와 함께 태어났고, 만물은 다 같은 기(氣)에서 화생되었으므로 나와 한 몸”을 뜻한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성과 존엄성을 인지하였다. 이 같은 이상의 모체인 자연의 질서로부터 떠나게 된 것은 자기중심 사상의 소아(小我)에 사로잡히고, 희로애락 감정에 휩싸여 그 허정(虛靜)을 상실 한데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희로애락의 정이 감발하기 전의 모습을 천지의 대본으로서 중(中)이라 하였

고, 발하여 알맞게 조절한 것이 화로서 달도 라고 하였다. 이에 화를 통하여 종합하지 될 때 천지는 그 질서를 찾게 되고 모든 만물은 각기 알맞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유한 인간의 잠재한 능력을 다 계발 하였을 때, 비로서 모습으로 천지간에 그 능력과 특성을 알맞게 조절하여 대화(大和)를 가져오게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천·지와 더불어 인(人)을 삼재(三才)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제껏 우리가 제약을 받아온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 본래의 모습을 찾아 그와 하나가 될 때 그 위대하고도 경이로운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배상현  
인문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 ‘청소년도 성인도 아닌 18과 20사이’

### 법마다 미성년자 규제연령 제각각

###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 규정안 조속히 시행돼야

“노래방은 갈 수 있으나 술집은 갈 수 없고 당구장은 갈 수 있으나 나이트는 갈 수 없다”

청소년은 아니지만 성인도 아닌 만 18세에서 20세 사이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대학가 캠퍼스를 누비며 살아간다. 그런 그들이 일상에서 친구, 선배, 직장 상사들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곳이 술집이며 사회에서도 암묵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과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다르다.

단적인 예로 77년생 대학교 2학년 학생이나 78년생 갖 사한 회사원은 술집에 가지 못하게 돼있다. 현재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만 20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나 직장인, 군인 등도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술을 파는 유통업소에 가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 모순적인 모습에 김수현(연영2)군은 “대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인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담배나 술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모습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20세 미만에게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실상의 성인' 대우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하는 연령기준에 대한 논란은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논란거리였다. 법률상으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연령은 미성년자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20세미만, 국민건강증진법은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은 18세 미만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

하고 있으며, 유통업소 출입금지 연령도 미성년자보호법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이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은 18세 미만 등으로 제각각이다. 명확한 타당성도 없이 연령을 규정하며 때때로 미분책으로 법률을 새로 만들고 규제대상도 매년 바꾸며 미성년자들을 통제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청소년보호법 등 각 법률이 적용대상을 다르게 정한 것은 단순의 실효성과 사회통념, 선진국의 추세 등을 고려하지 못해 혼돈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박동서)는 “미성년자보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미성년자 음주·흡연 금지연령 조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8일 발표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미성년자보호법



대학가의 술 문화, 미성년자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과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20세 미만에서 18세까지 들쭉 날쭉하게 정한 금지대상 연령을 모두 '18세 미만 고교생'으로 통일시키고 발칙조항도 통일하여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혁신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현실에서 찾을 수 있고 지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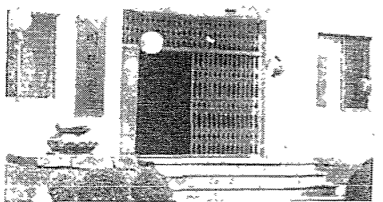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반영이라 생각된다.

학교근처 바호프의 “유통업소를 찾아오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출입을 막을 수도, 허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기회의 말에서 보듯 우리의 현실은 법과는 너무 멀리 있다. 법과 멀리 떨어져 버린 현실을 되돌릴 수 없다면 현실에 다가가는 법의 모습이 올바른 것이다.

최진 기자

## 본교 박물관, 낙후된 시설·빛나는 유물 ... '뚝배기보다 장맛'

### 소장 보물, 미국 전시차 나들이 ... 유물 전시·보존 위해 박물관 신축시급



하루에 찾아오는 본교 학생이 열명도 채 안되는 그야 말로 '소의' 된 곳, 박물관! 하지만 학생들과 학교의 무관심 속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박물관에 가보면

‘뚝배기 보다 장맛’이라는 속담을 실감하게 된다.

본교 박물관(관장=홍은식·역사교육학)은 1983년 9월 1일 지금의 해화관 전 자체산소 자리에 설립되어, 현재 위치로 이전한 이래 국내 유일의 불교 종합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국내 굴지의 대학박물관으로 성장했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1백50여점의 유물 중에는 청화백자승주(국보 제1백76호), 보현인석탑(국보 제2백9호) 등과 같은 국보급문화재와 청동은입사항완(보물

제3백1호), 감지니묘법연화경(보물 제3백90호) 등의 보물지정 문화재가 11점이 나 된다. 또한 건축·조각·공예·회화 등 각종 분야에 걸쳐 한국불교문화의 정수를 살필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 등지에서 불교미술명품 연구차 답사를 오는 등 외부에서의 인지도가 매우 높다.

한편,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한국관이 설치되는데 본교 박물관 소장유물인 민애대왕석탑사리호(보물 제7백41호)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은 초라하기 그지 없다. 본래 박물관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탓에 유물의 안전한 보관에 필수적인 환온·환습장치, 화재방지시설, 진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조명 또한 음산하다.

박도화 연구원은 “유물의 전시공간 부족도 큰 문제”라고 말하며 현재 전시되어 있는 1백 50여점의 유물을 제외하고도 약 3천여점의 불교미술품이 유물수장고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유물수장고도 포화상태이다.

한상길 연구원은 유물의 전시, 보관을 위해서 박물관 신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며 “학생과 학교측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결국 학생들과 학교의 무관심때문에 조상들의 빛나는 유물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렌과 노트를 들고 박물관에 둘러보라. 옛 조상들의 불교에 대한 경의심과 그네들의 빛을 이 가을에 느껴 보라.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다.

김미경 기자

#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로기 열려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 대졸직원 모집

- 채용 예정 인원 : 000명**
  - 상경계열, 법학계열, 인문사회계열, 농과계열, 어문계열, 이공계열, 전산계열, ROTC 임원예정자 각 00명
- 응시자격**
  - 학력 : 4년제 정규대학 98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술업자 중 모집관련 계열학과 전공자로서 전학년 또는 3, 4학년 성적 평균평점 B학점 이상인 자
  - 연령 : - 학사 : 74. 1. 1 이후 출생자 (병역필자는 69. 1. 1 이후 출생자)
  - 석사 : 72. 1. 1 이후 출생자 (병역필자는 67. 1. 1 이후 출생자)
  - ROTC 임관 예정자 : 74. 1. 1 이후 출생자
  - 병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일시 : '97. 10. 9(목) ~ 10. 14(화)
  - 장소 : 교부(해당 대학교 취업보도실), 접수(지정 장소)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필기고시(영어, 일반논문), 인성 적성·사무능력검사
  - 3차 : 면접, 신체검사, 산원조사
- 필기고시 일시 및 장소**
  - 일시 : '97. 11. 9(일) 09:30 ~ 13:20
  - 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6개 지역의 추후 지정 장소에서 실시

문의전화 서울 (02)397-5306-8

경기 (031)229-6600 강원 (031)259-8036 충북 (0431)229-1828 충남 (042)229-6103  
 경북 (053)240-5016 경남 (052)229-7518 경북 (053)340-4440 전남 (059) 68-1832  
 전북 (054) 20-1214 부산 (051)855-8043 인천 (032)420-2412 대구 (053)229-2511  
 광주 (062)627-6501 대전 (042)220-0322 울산 (052)257-6061

**농협중앙회**

메아리

기아

▲수하여행때 아산에 있는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을 견학한 적이 어렵듯이 생각한다. "기아는 소유주와 경영주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민기업"이라고 우리를 안내하던 어떤 아저씨가 자랑한것도 기억한다. 그 후 불과 몇 년 뒤 가하는 주저 않고 말했다. 이제 거리에서 기아(KIA)라고 쓰여진 자동차를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먼저 든다.

▲언제나 우호적인 자세에서 우리를 보며 즐거워 생각했던 덩치 큰 이웃나라가 요즘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다행이 아닌 301조에 '슈퍼' 라는 말까지 나 붙은 '슈퍼 301조'를 발동했다고 하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이는 한국 자동차 시장이 아시아권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나라로 고수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발목을 잡기 위협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장체제와 비슷한 주위 몇몇 나라의 본보기로 지목한 셈이기도 하다. ▲2년 9개월전 미국은 세계경제의 최강임을 자랑하듯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를 상설화 시켰다. 그 후 세계의 경제는 자유무역체제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서로간의 공정성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행위는 철저치 위협과 협착을

위시한 '힘의 논리'이다. 아마 WTO체제 이전에 사용했던 슈퍼 301조라는 '핵무기'의 미련이 남아 있나 보다. 그러나 다년간의 무역체제 속에서의 힘의 논리는 사실상 '탄피'에 불과하다. 그건 아마 여러곳에서 지켜보는 시선의 따갑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몇몇 나라의 이념 전쟁을 제외한 세계의 가시적인 전쟁은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커다란 전쟁이 놓여져 있다고 본다. 그건 바로 '무역 전쟁'이다. 이젠 '적당의 수법'도 통하지 않을 때이다. 그렇다고 흥분된 자세로 날 뛰어서도 안된다. 차분한 마음으로 이에 대응할 방안 모색에 주력할 때이다. 기아 자동차처럼 우리의 자동차를 세계시장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을 지도 모르니까 신용우 편집부장'

탈수습기

3만 독자의 눈과 귀와 입으로 거듭나라. 그대 '정기자'여

만인을 위해 땀흘려 일하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고 싶다



유철주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로 시작하는 '자유'라는 노래가 있다. 동대신문사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면접시험에서 불편을 마크로 삼아 열창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그 노래.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마치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 '자유'의 첫 구절이다. 신문사에 들어오기전까지가 '나'를 위한 공부였었다면, 수습기간은 '사람'을 알게된 고민의 기간이었고 이제는 만인을 위해 일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실천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벌머리 뜨거운 가슴'이라고 표현되는 단순무식의 젊음에서 '알고 실천'의 젊음으로의 변화를 나는 이곳 동대신문사에서 맞았다. 결코 작지않은 이 변화가, 수북이 쌓인 원고지와 작은 펜을 통해 시작되었던 것임을 생각하면 이제 나의 자리는 바로 여기라는 확신이 든다.

늦은밤, 기사마감을 하고 신문사를 나갈 때 느껴지던 시원한 바람기를 통해 지난 날과는 다른 가을을 맞았다. 사람들은 이 계절을 '납자'나 '고독'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땀이 쏙쏙하고 외로운 느낌을 강조한다. 그러나 주렁주렁 열린 과일이나 누렇게 익은 곡식을 보면서 '수확'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말들로 수식되고 있는 이 가을이 나에게 주는 쓸쓸함이 아닌 수확과 풍요로움의 계절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위치와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취재를 위해 많은 곳을 다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정열' 하나로 살아간다는 학생, '인내'와 '끈기'로, 지금까지 버텼다는 한 어머니, 그리고 '투쟁'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던 빨간 머리의 아저씨 등. '만남'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성격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느꼈수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삶을 위한 버팀목과 디딤목의 역할이라는 것을.

"땀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라하고 노래 할수 있으랴"라는 이 노래처럼 씩씩이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 거듭나기를 3만 독자들에게 다짐해 본다.

유철주기자  
문과대 인문학부

우물안 개구리에서 언론의 바다로 도약



김미경

우물안 개구리였다. 20대의 포문을 열고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내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알지 못하는 바깥 세상을 동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신문사를 택했고 신문사는 내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바다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내가 쓴 기사마다 이름의 마지막 글자인 '경'을 달았던 것이다. 바다에서부터 천천히 한발, 한발 앞으로서 모든 것을 숙지하고 싶었다.

1997년 4월 29일, 처음으로 취재가던날, 애석하게도 비가 내렸다. 애써 진정시킨 마음은 비에 씻겨 없어져 버렸다. 시종 일관 다리는 후들거렸고, 발은 재맛대로 나왔다. 취재를 끝내고 '가겠다'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찌나 힘들던지... 무심코 바라본 취재원의 표정은 '빨리 가라'라고 말하고 있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한채 중중걸음으로 나왔다.

1997년 5월 23일, 기사를 쓰느라고 밤을 새웠다.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 이니셜을 달고 나가는 기사였기 때문에... 기사를 읽을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불편을 권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1997년 8월 9일, 명동성당에서 우연히 본 '김해효'씨를 인터뷰하면서 내 소개를 할 때 많이 말걸었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라고 해야 하나, '동대신문사 기자'라고 해야 하나. 언재부터인가 이름 앞에 붙은 수습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다.

1997년 9월 9일, '8시뉴스'를 보고 있는 내가 대전스러워 '화식'이었다. 그리고 보니 예전보다 많이 해박해진 것 같기도 하다. 아! 나도 기자가 되려나 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는 정기자이다. '수습' 대신 붙은 '정'이라는 글자가 불안한 행복에 젖게 한다. 가진것이라고는 '노력'밖에 없는 나, 그대 달리는거야!  
가까스로 우물 밖으로 기어 나왔다. 숨이 차다. 한껏 땀을 흘리고 땀을 뿜어내고 있다. 그리고 큰 독자대중이 살아 숨쉬는 언론의 바다로 뚝뚝 뛰어들다.

김미경기자  
문과대 한국어문학부

신문사라는 거대한 자석의 힘으로 이제야 기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조순soon

사람을 만나는 것, 글을 쓴다는 것, 구술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 내가 가장 힘들어 하고 싫어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3월 어느 날 지금까지의 생활과 다른 좀더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삶을 원했다. 그 수습기는 총동에서 어찌보면 무모하게도 한도 도전을 시도했고, 그 결과 한쪽 발을 신문사에 들여 놓을 수 있었다.

자석에 오래 붙어 놓은 철은 자석의 성질이 생겨 다른 물체를 끌어 당기는 힘이 생긴다. 6개월 동안 신문사에 있으면서 내가 바꿨던 것은 자석에 붙어 있던 철처럼 나에게도 자석의 힘, 즉 기자의 자질과 능력이 저절로 생겼기를 원했다. 그러나 개인보다는 조직을, 자유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신문사 속에서 난 본래의 나를 찾기를 버렸고, 이 속에서 내게 부여된 업무들, 아니 내 능력을 넘어선 일에 지를려 막고 고민과 방황을 해야 했다. 때론 자석에 전도된 철이기를 거부하면서.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동할 때 이미 난 혼자자 아니었다. 신문사에 들어와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얘기하던 나의 동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자의 면모를 보여주던 형들. 신문사와 기자가 아닌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에 전도되었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열정과 오기가 타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난 지금까지 감내했던 수습이라는 보호막을 벗고 정기자라는 새로운 틀을 나에게 씌운다.  
책임과 의무, 그리고 두려움...

정기자가 되어 끊임없이 부여되는 과도한 업무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나를 다시 덮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석의 성질을 띤 철은 자석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겼듯 어느새 신문사에 전도되어 있는 나를 발견한다.

누군가 이런말을 했다. "도전하는 자에게 두려움 것이 무엇이며, 노력하는 자에게 성취 못할 것은 없다"라고. 내일 난 동약의 곳곳을 달린다.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나의 편대를 필요로 하는 의지를 향해.

조순soon기자  
사범대 영어교육과

새봄처럼 · 아침처럼 · 처음처럼 신문지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나



정희정

"처음으로 하늘을 맞이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어린 새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가 저물어 가는 저녁무렵에도 항상 새 봄처럼, 아침처럼, 처음처럼 하루 일과를 새로이 시작한다"

신문사문에 걸려 있는 글귀. 지금까지 지난 6개월간을 생활해 오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들어 두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수업과 취재를 두고 수업은 망설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든 무언가가 나를 끌어 당기고 있었기에 난 과감히 이 길을 택했다.

형들에게서 기사를 배웠으면서 느끼는 부담감,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남달려 흐느끼기도 하고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몇 시간을 헤매기도 하였다.

그러나 취재를 하고 돌아 다니는 나를 보면서 그 방황마저도 다시금 신문사로 이끌게 했고,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신문지기를 다짐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대 신문사 한쪽에서 항상 나를 반겨주는 책상, 내 자리가 있기에 돌아 가야만 한다' 빌을 등지고 등지고 나간 수많은 얘기를 속에서 '끈끈한 동지애'를 발견했고, 한직의 솔로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세상의 진면목에 조금씩 눈이 뜨인 나를 느꼈다.

처음 출입처 문을 두드렸을 때의 두려움이 이제는 양쪽 어깨에 실려있는 자신감으로 조금은 거만함이 있을지 모른다. 예전같지 않은 내 모습에 또다려 나를 시도하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방황은 여기서 거두려나.

내 생애 다시는 밟아 보질 못한 수습으로서의 생명력을 마감하고 아직은 서투른 날개짓이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보지도 않게보지도 못한 내만의 날개 쪽지가 있기에 오늘도 나는 하늘을 향해 날아 오른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존재가치를 묻는다면 "그건 아마도 신문 한쪽에서 비워져 있는 기사를 내일이 채울수 있기에 난 이곳에 남는다"고 서슴없이 말하겠다.

정희정기자  
상경대 경상학부

동국발전기금부자현황 (97. 4. 1-9. 30까지) = 1, 234, 360, 156원 (258건)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Includes categories like 재단원, 교직원, and various individuals.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대선후보시리즈②

김대중

△대중앞엔 바른소리 민중앞엔 허튼소리 △대중아저 대통령이 그렇게도 좋나요?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순리이지 않나요?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정치! 멋쟁이 아저씨 이번에는 필승 △후보 단일화 실패...노태우 당선, 정계은퇴 반복...김대중 당선(?) △대중이 대중이 너를 원하고 있다. -대중이 △남아일인 증친급 아시는지... △김대중씨는 이인제의 경선불복에 비난할 자격없다. 평민당때를 생각하라!! △양치기 할아버지 ~ 절름걸이는 평권.



김종필

△권력이 무엇이기에... △그 돈 갖고 불우 이웃 성급 내서 북한 도우면 후세에 더 미를 날릴 까. △왜 또 혼란한 사회를 만들려 하십니까? △정신차려! 밥상차려! △밀어 주자 김종필 왜! 밀어도 대통령은 안되니까! △총정 대통령 파이팅 내각제 찬성 △12월 18일에 김대중씨에게 투표하는 게 어머시겠습니까? △유신분당 물러나라! △기회잡기가 힘들겠군요.



조순

△특별시민으로 밀어드릴 용의 있음. △역대 대통령중에서 보기힘든 성씨를 가진사람??? △시 보다는 국가에서 해먹기 △시장이나 잘하지 무슨 얼어죽을 대통령은!! 기력이의 꼬임에 넘어간 방청이! △시장은 호구냐? △산신령이 속까지 참견이나? △조순의 눈썹은 과연 천하일품(天下第一) △그럼 서울은 누가 지키냐? △포청천 끝났는데? △시장이면 새벽시장이 가자 정치시장엔 왜 가?



빈번한 도서관 분실사고 실질적 대책 필요할 때

지난 3일 난 펠소와 다름없이 중앙도서관을 찾았다. 제대한 이후 계속 도서관을 이용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책을 펴두고 공부할 시작했다. 시간이 지난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휴게실에 갔다는 사이 나의 지갑에 든 30만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너무나 화가 났다. 주위에 있던 학우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때 불현듯 내 옆자리에 있던 학우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던 사이 그들이 황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깨닫지 못했는데 아마 그들이 모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추측일뿐 이미 가져가 버린 돈을 타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 대학은 지성인들의 공간이라며, 이렇게 황폐화되어 버린 것에 분개를 말할 수가 없다. 나 한 사람의 분개보다 이처럼 서로를 불신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더욱더 분노가 치민다. 내 돈을 잃어버렸다 치더라도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남의 돈을 탐을 날까하는 생각에 측은한 마음이 든다. 뭔가 두려워하며 황급히 나간 그들의 뒷모습이 느껴진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두려워하며 공부나하는 사회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생으로서 도서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것은 있을 수 없다. 비록 나 이외에도 피해본 사람이 많을 줄 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분실사고는 우리 동대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표족한 수는 없지만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에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이후락(공과대 컴퓨터공학과)

문화의식 한 단계 높여야 참다운 공연문화 싹튼다

지난 9월 30일 교내 백상탑 앞 사거리에서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총여학생회가 주최한 마당극이 열렸다. 그 곳엔 70여명의 학생들이 빙 둘러앉아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뿐 열연하는 주인공의 목소리에 몰입해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마당극은 소외되고 잊혀져가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치욕적인 삶을 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긴 채 끝마쳤지만 다른 가슴 한 구석에 솟아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학내 공연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학생회나 총여학생회에서 1년에 한 두번 주최하는 마당극 그리고 동아리들이 내놓는 콘서트는 자기들의 집안 잔치가 되어 버린지 이미 오래여서 이러한 학내의 공연이 학우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학우들이 접할수 있는 공연이 적은 것은 학교의 환경적인 요인과 학우들의 공연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우선 교내에 공연할수 있는 마당한 장소가 없다. 마당극을 관람하고 있는 동안에도 도로를 연

획일적 게시문화 자유로움 느낄 수 있어야

누구나 대학에 와서 느낀 것은 고등학교와 다른 자유스러움일 것이다. 똑같은 머리와 똑같은 옷으로 집과 학교를 왕복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얘기는 단정함이고, 자료 갠 듯 얹어둔 3Cm. 뒷머리 0Cm같은 획일성은 아름다움마저 느끼게 한다. 그러나, 대학은 다르다. 청바지를 찢고 다니다. 미니 스커트를 입는다. 머리를 밀든지, 장발을 하든지 다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그 다양함이 교정을 밝게 만든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 느낀다는 세상에 사는데, 저마다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2학기 개강을 한 이후 달 라진 학교의 모습에 놀랐다.

동악광장

수고하시네요. -동국인 △생명자원경제 농구는 졌지만 수고 진짜 많이 했다. 열심히 하시다 △백상축구대회 우승은 전자과로. 화이팅 -전자과 한 멋쟁이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하시다. -학구파 △사과대 회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시다. △공대 체전 무사히 치르도록 열심히 하시다. 알립니다 △농어촌 연구회 전통놀이마당, 민속음식점 합니다. -농어 △10월 10일 9시부터 기념마라톤 대회합니다. 우리 모두 환영조, 이봉주가 되십시오. △독어독문과 경기가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독문과 학생들 싸인 받으세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채팅하지 맙시다. -도서관 모범생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모두모두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있어서라지만 모든 벽이 새로 칠해지고, 이제는 자보같은 게시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물론 깨끗한 벽과 일정한 자보양식으로 자로 갠 듯 정확하게 줄지어 부착하는 것도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아름답다, 보기 좋다는 기준은 누구의 것인가. 물론 게시물이 낡거나 지났는데도 붙어 있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의 잘못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핑계로 모든 게시물을 똑같이 한다는 건 안된다고 본다. 이곳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이기 때문이다. 석장에서 나오다가 운동장 스탠드 밑 동아리 방들을 바라본다. 깨끗하게(?) 도색된 벽. 오늘은 깨끗함이 어색하다. 내겐 방학 전 벽에 곱게 그려져 있던 벽그림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것이 아름다움이라면, 조금은 흠을 어진 것도, 다양한 것도, 아름다움이 아닐까 신우성(법정대 행정학과)

음악의 백상체전 페어플레이 정신 깰들여야

음악의 체전 바람이 한창이다. 음악이 이곳 저곳에 축구·농구 대진표가 붙고 어느 날부터 대운동장과 원광로 옆 농구장에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이 모여있었다. 'A과와 B과의 농구대회'가 열린던 두 과의 많은 학생 및 교수님들이 관람에 열을 올리고 응원에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과학실험실에서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던 새태 속에서 이런 모습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재학생과 복학생간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좋은 백상체전, 동화·대중의 장에서도 몇몇 단점은 있기 마련이고 특히 보는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있어 이를 좀 더, 체전을 관람하며 자신의 과를 응원하는 학생들이 게임의 결과에 치중 한 나머지 과인 응원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가 잘해라'가 아니라 '너희팀 못해라'라 불리는 응원의 구호. 어떤 장난기가 발동해서라고 이해하거나, 혹은 지나가는 농담으로 상대팀에 대한 비방을 쉽게 눈감아 줄 수도 있었으나 이런 모습은 엄연히 지성인이 보여주는 안면 모습이라 생각한다. 체전은 본래 음악의 큰 행사로 동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안다. 땀 흘리며 몸을 섞어 뛰다보면 동기간에 선·후배간에 동질감이 들기 마련인 것이다. 이 좋은 뜻도 살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한다면 대동의 정신은 한층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한다. 김동훈(정심대 경상학부)



동명칼럼 동명칼럼 국적은 바뀌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 이 제로(국사 80졸·경주 YMCA 사회개발부장) '사람은 정의를 더 좋아 함께 살자'라는 이 문구는 나의 좌우명이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 어렵게 된 자들을 위해 함께 울고 웃고, 민주주의의 권익과 환경 운동, 시민 운동을 어언 5년째 하고 있는 들꽃 같은 사람이다. 21세기를 3년 앞두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구상과 계획이 정부, 기업, 대학, 시민단체, 개인 할 것 없이 붓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웃간의 열린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의 생태계와 조화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꾸는 일은 필경 산업 경제 발전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슬로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치인, 교수, 기업인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욱 담고 있다. 저 또한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유식하게 보이려고 교만과 허풍을 떨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현실에 अनु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미래가 없을 뿐이다. 큰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 물론 통속적인 이야기지만 실천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것이다. 동국대학교 경주분교에서 캠퍼스로 바뀐지가 몇 해 되지 않았지만 편히 열들의식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적 없는지? 학교가 겪어 낯아서 이력서에서 그냥 동국대학교 무슨 학교라고 기록하신 적은 없는지?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가? 전국에 있는 1백개 대학과 교육시장 개량으로 세계의 우수한 대학이 우리의 경쟁 상대이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편한 것이 외국어 통용이다. 어학연수를 가던지, 유학을 가던지, 독학을 하던지 외국어 2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운동과 격동의 시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 땅의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많은 고뇌와 학업의 지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는다.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지 못한 아쉬움, 지적이고 인격적인 스승을 못 만난 아쉬움, 외국어 하나 회화하나 할 줄 못한 아쉬움...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다. 학교를 사랑하고 빛내라고 그리고 자신과 국가, 가족을 위해 꿈과 희망을 간직하면서 승리의 그날을 위해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Table with 2 columns: Date (월) and Amount (금). Rows include '다향관 학생식당 차림표' and '동국관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with various menu items and prices.

목욕탕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인문학부 권정미, 재갈진의 탄신일을 축하합니다. -이숙, 하영이 △우리의 슈퍼모델(?)의 첫 연애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모나 △신문사 3차로 들어온 후배들 축하합니다. -이카라 △병준이 생일 축하한다. 너무나 누 -역사교육과 한 여인이 △철주, 미경, 은순, 회정 정기자되는 것을 너무나 축하한다. -정식 △유현이 진이 애인이 됩시다 축하해. 연라해라. -진짜 애인 수고하셨습니다 △남산골 한마당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홍 △평진 학술 한마당을 준비한 모든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과대 펠시맨 △수민아!! 준비하느라 수고했다. -?? △백상체전 모든 심판들 정말정말

의미를 되새기시다. △한글날 왜 안놀까요? 우리 모두 부쟁으로 광유일을 만듭시다. △미희누나 연수 잘 갔다 오세요... -훈 ○반갑습니다 △밤정 96 이해정 생일 축하해(10/2) -96법정 친구 △그날이 오면 공연을 미리 축하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못난이 △풍국미식 축구가 대진 한남대의 시합에서 16:0으로 이긴 것을 축하합니다. 전국대회를 위해 열심히 하세요 -훈련부장 △한문학과 3학년 정민양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좋은 친구가 △정은아 생일 축하해.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학교에 좀 나와라 -H △97관경 정재훈군의 10월 9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은아 10월 5일 너의 생일 축하하고 수고하세요 열심히 하시구요 술 탕배 많이 하지 마세요. -97 동복 헤지니 파이팅!! -연

△10월 9일은 새까만 형조의 행일!! 형조야 생일 축하해 -이빈 실현이 △사랑하는 윤정이의 열아홉번째 생일입니다. 진자로 정말로 축하해요 -사들 장 △유희와 덕연이의 1백번째 만남을 축하합니다. 너희들 서로서 사랑하는 마음, 언제나 먼저 알기를 바래 -너희들의 친구 윤정 수고하셨습니다 △국사학과 집부 여러분 졸업여행&답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행사인 뱃터도 잘해 봅시다 -미스코 △토한 조직원들 정기총회 한다고 수고맙습니다 또한 화이팅! -회장 △한희대 비대위 여러분 수고하세요! 상경! 투쟁! -97 이뿐이 △한문학과 여러분 대경한런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훈은96 △소중한 아이들아 13일 공연 그때까지 참여보자 좋은 날이 곧 오겠지. -소아 27 △상준이 선배님 요즘 비대위 하신다고 수고하세요 열심히 하시구요 술 탕배 많이 하지 마세요. -97 동복 헤지니 파이팅!! -연

열심히 하시다 △수고4 재운아! 10월 11일에 있는 대학원 시험 딱 하고 붙어라. 내가 안 붙으면 누가 붙노 파이팅 -수고 짱 △루정규 시험 잘 쳐야 할텐데! 안경찬도 수고 열심히 -국경일동 △백상체전이 한창인데 노나매기 여러분 열심히 하시다. -연순 알립니다 △타임 공개 발표회가 8·9일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오후 4시 도서관 3층 교육매체실 △울산 성광여고 95년도 졸업하신 분들 찾습니다(012-1591-8600) 그리고... △행정학과 축구팀 백상체전에서 좋은 성적 거두길 -97법정인 △풍국불림 백상배에서 좋은 성적 거두길 -훤이가 △성희의 귀환일 꿈꾸어 -관경 △목덕골 경찰행정 경찰이 14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 아저씨가 됩니다.